중소벤처기업부	보 도 자 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지 면) 1. 18(수) 조간 (인터넷) 1. 17(화) 12:00	-		
담당 부서 <총괄>	창업벤처혁신실 벤처투자과	책임자	과 장	김정주 (044-204-7710)
		담당자	사무관	이종우 (044-204-7713)
			주무관	오선혜 (044-204-7715)
운영 기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투자정보센터	책임자	부 장	권대희 (02-2156-2101)
		담당자	차 장	김승관 (02-2156-2102)

벤처투자기금(펀드) 운용정보시스템 오픈

- 출자한 벤처기금(펀드)의 상황을 온라인으로 한눈에 확인 -

□ 벤처기금(펀드) 운용사와 출자자가 기금(펀드) 운용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쉽게 공유할 수 있는 '벤처투자기금(펀드) 운용정보시스템' 국내 최초 운영 개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회장 지성배)는 벤처기금(펀드) 운용사(General Partner, GP)와 출자자(Limited Partner, LP)가 기금(펀드) 운용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벤처투자기금(펀드) 운용정보시스템(www.vfs.or.kr)'을 18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벤처투자기금(펀드) 운용정보시스템은 기금(펀드) 운용사가 출자자에게 기금(펀드) 운용실적, 자금 집행 현황 정보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플랫폼으로, '22년 4월에 착수해 같은 해 12월에 구축을 완료했다.

개별 운용사나 출자자의 자체 시스템이 아닌, 다수 운용사와 출자자가 이용하기 위한 벤처투자 플랫폼은 벤처투자기금(펀드) 운용정보시스템이 국내 최초다.

[구축 배경]

벤처투자기금(펀드) 운용정보시스템은 벤처기금(펀드)의 업무를 집행하는 운용사가 기금(펀드) 출자자에게 기금(펀드) 운용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던 불편을 해소하고자 구축됐다.

① 다수의 기금(펀드)에 출자하는 출자자는 각 기금(펀드)의 운용사가 제각각 보고하는 운용 실적을 통합해 관리하기 어려웠다. 대형 기관 출자자 중에는 독자적인 시스템을 통해 운용사들로부터 기금(펀드) 운용 실적을 보고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출자자들은 운용사가 전자우편(이메일), 설명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고하는 기금(펀드) 운용 실적을 자체 취합해야 했다.

* 한국성장금융, 산업은행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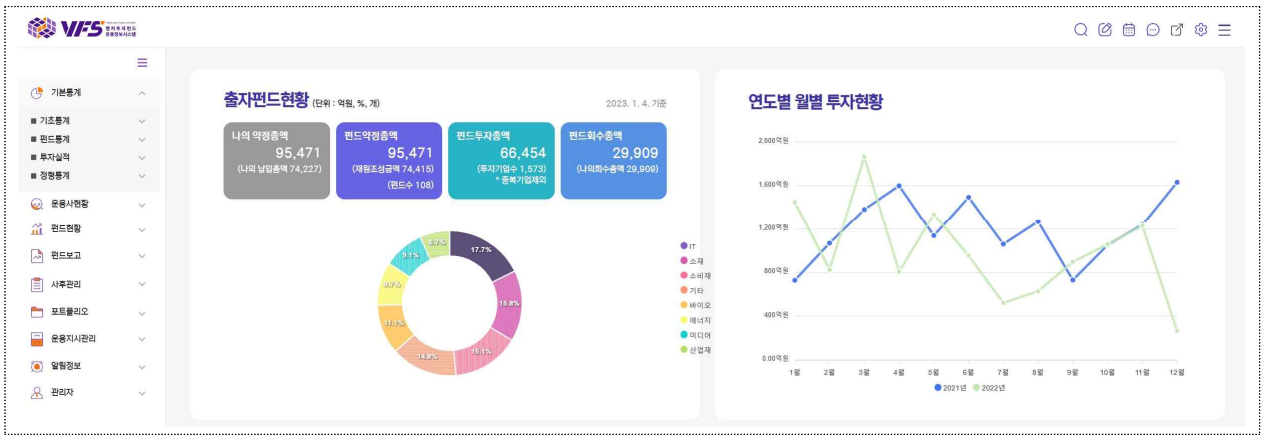
② 운용사는 기금(펀드) 운용 실적을 출자자에 따라 ▲출자자 자체 시스템, ▲전자우편(이메일)·서면 등으로 각각 보고하는 불편이 있었다.

[주요 기능]

이에 따라, 벤처투자기금(펀드) 운용정보시스템은 벤처기금(펀드) 운용사와 출자자가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기금(펀드) 운용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여러 기능을 제공한다.

① 출자자는 자신이 출자한 벤처기금(펀드)의 운용 실적을 통합해 확인할 수 있다.

< 벤처투자기금(펀드) 운용정보시스템 화면(로그인 필요) >



* 운용사와 출자자의 화면 구성 등은 일부 상이할 수 있음

② 운용사는 운용사 내부 전산망(ERP)과 연계해 기금(펀드)의 주요 정보 등록, 투자 변동상황 관리와 투자진행별 주요 보고*를 자동 처리할 수 있다.

* (정기보고) 조합원 총회(연간), 투자보고회(반기), 운영실적, 자산현황 등(매월)
(수시보고) 조합원 총회, 자금 집행 현황, 투자심의회, 기타 출자자 요청 자료 등

③ 기금(펀드)의 재산을 위탁*받은 기관과 기금(펀드) 운용사 간 재산 운용 지시 및 운용 결과보고를 전산 처리하고 출자자는 이에 대해 실시간 점검(모니터링)할 수 있다.

* 벤처기금(펀드)는 신탁업자(은행, 보험회사 등)에게 기금(펀드) 재산의 보관과 관리를 위탁하여야 함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3조)

④ 벤처투자기금(펀드) 운용정보시스템은 웹 표준을 준수함에 따라 사용자는 브라우저(크롬, 엣지 등)와 디바이스(PC, 태블릿 등)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영 장관은 “벤처투자기금(펀드) 운용정보시스템으로 기금(펀드) 운용에 관한 정보가 쉽고 투명하게 공유되면 벤처기금(펀드)에 대한 신뢰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벤처투자에 새로운 출자자가 진입하는 여건을 지속 개선해 우리나라 벤처투자 생태계의 역동성을 더욱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